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歸依에서 歸敬으로

쉽게, 평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에 대해서다. 둘이 아닌 하나를 거리를 넓혀 속세(俗世)와 속세를 저버린 뜻으로 과대포장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출가 수행자는 항시 우월한 존재로, 재가 수행자는 열등한 무리로 묶어두는 잘못을 불러들이고 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하나의 오늘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출가자(出家者)인 스님과 재가자(在家者)인 신도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의 불제자(佛弟子)집단이다.

우월과 열등의 선입견이 허락되지 않을 뿐더러 옷의 색깔과 모양의 형상에 따라 귀의처(歸依處)와 귀의자(歸依者)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불교에서는 마치 봉건시대의 계급사회처럼 출가수행자는 높은 곳에 재가수행자는 낮은 곳에서 헤매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젊은 스님은 설법할 때 높은 법상(法床)에 오르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고 학덕 깊은 노 교수는 서 있는 자세로 설법해야 하는 이상

출·재가, 나뉠 수 없는 불제자 집단
차별없는 평등의 수행체로 거듭나야

한 나라의 말뚝 박힌 모습이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어떤 행사를 치룰 경우에도 젊디젊은 주지 스님은 당연하게 독상을 차지해 식사하고 노 보살과 늙은 거사는 대중과 어울려 좁게 앉아 한 끼니를 스스로 찾아 챙겨야한다. 거기다가 스님의 설법엔 삼귀의(三歸依)와 청법가(請法歌)등이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 있지만 교수나 거사의 설법에는 복잡한 절차가 싹 뚝 잘려 간소하게 가볍게 치러진다.

법당 안에는 주지스님이 앉는 전용 방석이 색깔과 크기가 다르게 촌티 나게 버티고 있고 신도는 주지 스님께 삼배(三拜)하는 습관이 질기게도 관행처럼 정례화 되어 있다. 귀의삼보(歸依三寶)에서 귀경삼보(歸敬三寶)로 공감대를 넓혀 가야한다.

대접받는 문화가 뿌리를 깊게 내려 스님들은 의례히 받는 체질이 속물근성으로 굳어지며 미안함과 감사함, 고마움을 잊고 있다. 시대에 뒤진 마인드(mind)가 사찰 에서는 살아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출가자나 재가자는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같은 길의 불제자(佛弟子)이다. 승가(僧家)의 의미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니의 집단을 칭함이다.

남자 스님과 여자 스님,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가 차별과 우열이 없이 하나의 수행집단으로 화합과 평등을 지향하며 행복과 자유의 실현을 실천하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섬겨야할 신(神)이 없고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가 없다. 당연히 신(神)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따위가 있을 수 없고 화복(禍福)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자존심 없이 떳떳치 않게 사찰경제를 앞세우며 운명론적으로 기우는 기복신앙을 상품화 한다든지 주술적 부끄러운 몸짓으로 신앙을 거래하는 일은 없었는지 살피고 또 살피며 뼈를 깍는 자가 반성이 있어야한다.

무당들이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둔 곳을 법당이라 부르지 않고 단순하게 불당이라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찰의 법당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 게하는 가르침이 울려 퍼져야 이름 그대로 법당이 되는 것이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의 영험설화를 언제까지 풀어대며 당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해당 사찰과 스님들에게 묻고 싶다. 비구(比丘)는 법(法)을 찾아 수행하는 무소유(無所有)를 의미한다. 비우고 버리며 개운하게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한다.

한 평생을 수행했다는 스님들이 명예 부근에서 얼씬거리고 모으고 챙기는 일로 헐떡이며 흔들린다면 이들 무리는 해탈은 커녕 속물근성 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제도 받아야할 업덩이 중생일터.

비우면 편안하다. 버리면 개운하다. 나누면 기쁘다. 이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으로 신도들과 맞절하며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하나로 살 일이다. 꾸미고 드러내며 감추는 일이 줄어들게, 진솔하게 당당하게 개운하게 행복과 자유 누리며 살 일이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일 수 있게 오늘의 주인공으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생각의 윤회를 줄이며 살 일이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화두를 들고 참구할 때에 오매일여(寤寐一如)라는 말이 있다. 잠을 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똑같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같은 뜻을 가진 말로 몽여교일(夢與覺一)이라는 말도 있다 깨달을 각 자를 이때는 잠깰 교자로 읽는다. 대혜종고(大慧宗杲1089~1163) 선사의 〈서장(書狀)〉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향시랑(向侍郞)에게 답해 준 편지에 "보내주신 편지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 꿈을 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하나'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대가 인연에 얽매인 마음으로써 법을 들으면 이 법 또한 인연에 얽매이게 된다' 하셨습니다.(능엄경 경문을 인용한 말)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꿈이 없다는 뜻이니,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대적인 '없음' 이 아니며, 꿈과 생시가 하나일 뿐이라는 뜻입니다.(示諭 悟與未悟 夢與覺一 一段因緣 黃面老子云 汝以緣心 聽法此法亦緣 謂至人無夢 非有無之無 謂夢與非夢 一而已)"라고 하였다.

또 유보학(劉寶學)에게 답해준 편지에 "찌는 듯한 무더위에 편안한 곳에서 유유자적하시며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온각 마군의 어지럽힘은 없으십니까? 일상생활의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위의 가운데서 '개도 불성이 있는가?' 라는 화두를 한결같이 들고 있는지요? 시끄러운 환경이거나 고요한 환경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두가 항상 성성하십니까? 꿈을 꿀 때나 깨어 있을 때도 화두에 대한 의심이 똑 같으십니까? 근본적 이치와 구체적 현실에서 화두가 통일이 되십니까? 주관적인 마음과 객관적인 경계가 모두 똑같아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십니까?(卽日蒸Ⓒm不審 燕處悠然 放曠自如 無諸魔撓否 日用四威儀內 與狗子無佛性話一如否 於動靜二邊能不分別否 夢與覺合否 理與事會否 心與境皆如否)"라고 물었다.

위의 두 편지에서 대혜선사가 강조한 한 것이 간화선의 공부가 익숙해지면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져 선공부가 된다는 것이다. 꿈속에서도 공부가 된다? 꿈은 잠속에서 꾸어지는 것이므로 바꾸어 말하면 잠속에서도 공부가 된다는 이야기다. 선정을 이루는 것이 공부이므로 실은 선정 안에서는 밤낮이 없고 깨고 잠듦이 없다는 말이다. 의식의 활동은 식심(識心)에서 일어나는 분별이므로 이 식심의 영역을 넘어서 깊은 심층에 이르러야 선정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대품반야경〉에는 '몽행반야(夢行般若)' 라는 말이 나온다. 꿈에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뜻이다. 꿈은 거짓이고 반야는 진실한 것이라고 보는 분별심을 물리치기 위해 설해진 말이다.

사리불과 수보리의 대화가 전개되는 대목이 있다. "그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만약 보살이 꿈속에서 세 가지 삼매인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에 들어가면 반야바라밀에 이익이 있습니까?' 수보리가 대답했다. ' 만약 보살이 낮에 세 가지 삼매에 들어서 반야바라밀에 이익이 있다면, 밤의 꿈속에서도 또한 그렇게 할 경우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의 꿈속은 평등하여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불님, 만약 보살이 낮에 반야바라밀을 행하여 이익이 얻는다면 이 보살은 꿈속에서 반야바라밀을 행하여도 또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꿈에서도 선(善), 악(惡), 무기(無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다. 흔히 꿈은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을 비유하여 나타낼 때 곧잘 쓰는 말이다. 그리고 꿈은 현실이 아닌 것, 곧 거짓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현실을 꿈으로 보는 예도 있다. 중생의 생사를 몽경으로 보는 비유도 있다. 생사대몽(生死大夢)이라 하여 나고 죽는 것을 큰 꿈이라 하였다.

서산대사의 유명한 삼몽사(三夢詞)라는 시가 있다. 금강산에서 내려와 한양으로 들어오던 길에 어느 주막에서 주인과 객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엿듣고 지었다는 즉흥시다.

主人夢說客(주인몽설객)
주인은 꿈을 나그네에게 말하고
客夢說主人(객몽설주인)
나그네는 꿈을 주인에게 말하네.
今說二夢客(금설이몽객)
지금 꿈 이야기 나누는 두 나그네여!
亦是夢中人(역시몽중인)
꿈속에서 꿈 이야기 하고 있구나.

마지막 4구는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자체가 꿈인 줄 왜 모르냐는 것이다.

대비심 있어야 타인 괴로움 안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⑯ 공덕을 기르기 위해선

說悲品第二十三
世間人天阿修羅等。受身有種種苦。唯有菩薩徹髓悲者。知一切善法以悲爲首。智人當知。如似一切諸字悉曇爲首。一切善法皆入悲中。如似一舍眾色皆入。若見虛空淨æ 見大悲淨。見虛空無邊大悲亦無邊。佛說。若欲現前見我當恭敬大悲。若欲見我。當觀三界皆悉受苦。苦無邊故大悲亦無邊。苦住故大悲亦住。大悲住在。何處住在。一切眾生貪欲瞋ㄙ癡癡生老病死種種苦聚與諸眷屬在中而住。有大悲心能知他苦。此名與佛共住。有三種施一切功德養身。猶如乳母。是名大悲。

번역 | 설비품 제23
세상의 인간과 하늘, 아수라 등의 몸을 받으면 가지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직 보살만 철저하게 자비심을 따르는데, 일체 선법(善法)을 알고 자비심으로써 으뜸을 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응당 아는바 일체의 모든 글자가 실담(悉曇:범어의 자음과 모음)을 머리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의 선법(善法)이 다 자비 가운데 들어가나니, 하나의 우주에 뭇 색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허공의 깨끗함을 볼 수 있다면 대비심의 깨끗함도 보게 됩니다. 허공이 가없음을 볼 수 있듯이 대비심도 역시 한계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현재 나를 보고자 한다면 응당 대비심을 공경하라" 하셨고, "나를 보고자 한다면 응당 삼세(三世)가 모두 다 고통받는다는 것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가없기 때문에 대비심도 가없습니다. 괴로움이 머물기에 대비심도 역시 머무는 것입니다. 대비심이 머물러 있다면 어느 곳에 머물러 있겠는지요. 일체 중생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생로병사와, 가지가지 괴로움이 모인 곳과 더불어 모든 권속 가운데 있으며 머무릅니다. 대비심이 있어야 능히 타인의 괴로움을 압니다. 이것을 일러 부처님과 함께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보시가 있어야 일체 공덕의 몸을 기릅니다. 마치 어머니의 모유와 같은 이것을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해설 | 보시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 이것을 삼종시(三種施)라고 한다. 삼종시(三種施)는 법을 설하는 법시(法施), 가진 재물을 보시하는 재시(財施),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를 이르는 말이다.

법보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엄경〉 십지품 중에서, '가령, 스스로 바른 행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바른 행을 닦게 함은 있을 수 없다(若自不能修行正行, 令他修者, 無有是處)' 는 말씀이 있다. 나는 스님이요, 당신은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가르치듯이 법을 베풀어서는 곤란하다. 십지품에서 보살은 '부끄러움을 옷으로 삼는(慙愧爲衣)다' 는 게송도 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함께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법보시의 참된 의미도 살아날 것이다.

재시(財施)의 주의할 점은 미리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 내가 얼마를 주었으니 스님은 나를 위해 얼마를 기도해야 하고, 내가 얼마만큼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등을 놓아야 한다. 보시란 말 그대로 베푸는 것이요, 공양하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이 역연할 줄 알면 당연히 좋은 과보도 따라올 것을 믿어야 한다.

무외시(無畏施)는 중생의 두려움을 이용한 돈벌이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돌아가신 조상을 들먹이거나, 귀신을 들먹이거나, 지옥의 고통을 들먹여 추종하게 만들며, 재물을 바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 溪 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일동